

# 2월 대출금리 하락... 가계 '짚김'

3.45%로 전월 대비 0.06%p ↓ ... 대기업 0.11%p ↓ ... 가계 0.01%p ↓ · 주담대 0.03%p ↑

2월 예금은행 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전환됐지만 기업과 가계의 희비는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대출금리는 대기업을 위주로 크게 내렸지만 가계대출 금리는 거의 하락하지 않았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히려 올랐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 달 예금은행의 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3.45%로 전월 대비 0.06%p포인트 하락했다.  
기업 대출금리가 내린 영향이 컸다. 대기업 대출금리는 1월 3.20%에서 2

월 3.09%로 0.11%p포인트 내렸다. 중소기업 대출은 3.79%에서 3.5%로 0.04%p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가계대출 금리는 1월 3.39%에서 2월 3.38%로 0.01%p포인트 하락에 그쳤다. 가계 주담대 금리는 3.19%로 오히려 0.03%p포인트 상승했다.  
최영업 한은 경제통계국 부국장은 "2월에는 시장 금리가 하락하며 은행 대출 금리도 내렸다"며 "기업대출은 연초 대기업 저리 자금 영향으로 하락폭이 컸지만, 주담대 금리는 연동상품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오르면서 상승세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은행 예금 금리도 하락했다. 2월 예금은행의 저축성수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1.49%로 전월 대비 0.02%p포인트 하락했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1.44%)는 0.03%p포인트 내렸고 시장형금융상품 금리(1.65%)는 지난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대출 금리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예대금리차는 1월 2.00%에서 2월 1.96%로 0.04%p포인트 축소됐다.  
하지만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오히려 확대됐다.  
지난달 잔액 기준 예금은행 총수신

금리는 1.15%, 대출금리는 3.38%로 나타났다. 수신금리는 1월과 같았지만 대출금리는 0.01%p포인트 오르면서 예대금리차는 2.23%로 0.01%p포인트 확대됐다.  
한편 비은행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는 하락세로 전환됐다.  
2월 상호저축은행 대출 금리는 11.36%로 전월 대비 0.39%p포인트 하락했고 신용협동조합 금리는 4.55%로 0.05%p포인트 내렸다.  
상호금융 대출 금리는 3.86%로 1월과 같았고 새마을금고는 4.02%로 0.10%p포인트 올랐다. /뉴스시스

## 베일 벗은 S8... 시장 '들썩들썩'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11조 '브랜드 신뢰성 회복' 가능성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S8 공개에 시장은 벌써부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갤럭시S8 출시로 삼성전자가 사상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브랜드 신뢰를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29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뉴욕에서 첫 공개한 갤럭시S8 시리즈에 글로벌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동부증권은 삼성전자가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8 출시로 2분기 영업이익 11조원을 달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성률 동부증권 연구원은 "갤럭시S8이 4월 출시돼 2분기 IM(IT·모바일)부문 영업이익은 3조9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이로 인해 전사 영업이익도 11조5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갤럭시S8은 상반기에만 2000만대 판매될 것으로 권 연구원은 예상했다. 연간 판매량은 4700만대로 관측된다.  
그는 "지난해 갤럭시S7이 4800만대 팔린 것과 비교하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갤럭시노트7 단종에 따른 것으로 예외적인 상황"이라며 "갤럭시S7과 S8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반기에 출시될 갤럭시노트8까지 감안하면 올해 프리미엄 모델 판매량은 5700만대를 훌쩍 넘을 것"이라며 "지난해보다 900만대 이상 많이 팔리는 셈"이라고 예상했다.  
대신증권은 갤럭시S8 공개로 신뢰성 회복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갤럭시S8 공개로 삼성전자 브랜드의 신뢰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갤럭시 S8 시리즈 살펴보는 시민들

삼성전자가 뉴욕과 런던에서 동시에 스마트폰 갤럭시 S8 시리즈를 공개한 30일 서울 서초구 삼성 딜라이트에서 시민들이 갤럭시 S8을 살펴보고 있다.

다"며 "지난해 갤럭시노트7 발화 및 생산, 판매 중단으로 하락한 브랜드 가치를 정상화시키는 모델로 평가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갤럭시S8은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브랜드를 재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갤럭시S8 연간 판매량은 4300만~4600만대 내외로 추정된다"며 "올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전자와 애플로 양분되는 구조"라며 "후발업체의 위협은 미미할 것"이라

고 덧붙였다.  
갤럭시S8이 하반기 아이폰8 출시 전까지 프리미엄폰 수요를 흡수하며 양호한 판매 실적을 올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갤럭시S8은 4월21일부터 정식 출시되면서 하반기 아이폰8 출시 전까지 프리미엄폰 대기 수요를 선점할 것"이라며 "갤럭시S8 출하량이 4600만대로 추정된다"며 "2013년부터 출시된 갤럭시S

시리즈 판매량은 4000만~5300만대 수준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출시 1년이 지난 갤럭시S7, S7엣지 판매가 현재까지 비교적 양호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향후 갤럭시S8 판매는 양호할 것"이라며 "2분기에는 스마트폰 평균 판가 하락도 제한적으로 예상돼 2분기 IM 사업부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67% 증가한 3조5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뉴스시스

## 35% 저렴한 실손의료보험 출시

"기존 계약자 가입전환 가능"

보험료가 35% 저렴한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  
이 상품은 보험금 미수령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며 과잉진료 우려가 큰 치료 등은 특약으로 분리돼 별도로 판매된다. 가입은 다음달 1일부터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기본형 + 3개 특약 구조로 구성된 새로운 실손의료보험을 24개 보험사에서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실손의료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하면서 대다수 질병과 상해에 대한 진료행위를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부족한 부분은 특약으로 보장한다.  
특약은 ▲도수·체외충격파·중식치료 ▲비급여주사제 ▲비급여MRI 등 3가지다. 단 비급여주사제 중 항암제와 항생제, 희귀의약품은 기본형을 통해 보장해 준다.  
보장한도와 범위는 세 가지 특약에 모두 가입할 경우 종전 표준화된 실손의료보험상품과 동일하다.  
특약은 항목별로 연간 누적 보장한도·회수를 설정하면서도 선택한 가

입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 수준으로 결정됐다.  
도수치료 등은 연간 350만원·50회로 설정됐다. 비급여주사는 250만원·50회, 비급여MRI는 횟수와 상관없이 300만원으로 책정됐다.  
보험료는 35% 이상 저렴하다.  
기본형 월 보험료는 40세 기준 남자 1만275원, 여자 1만3854원이다. 이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현재 평균액인 남자 1만7430원, 여자 2만1632원보다 각각 35.3%, 36.0% 낮은 가격이다.  
특약까지 모두 할 경우 남자 1만4569원, 여자 1만8098원이다. 전체 평균보다 16% 이상 저렴하다.  
또 신규 출시 상품은 직전 2년간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에게 차기 1년간 10% 이상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단 미수령자 여부 판단시 급여 본인 부담금 및 4대 증증질환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4월1일부터 기존 계약자도 원하는 경우 가입전환을 통해 신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며 "하반기부터 온라인 전용상품 가입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시스

## "고수익 보장" 불법 금융투자업체 209곳 적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가도 없이 영업해온 불법 금융투자업체 209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2015년(501건) 대비 58.3%(292건) 감소했지만 인터넷에서 모바일로 전환되는 등 사기 수법이 음성화되는 추세라고 금융감독원은 설명했다.  
불법 금융투자업체는 정부 인가나 등록 없이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을 해온 업체를 의미한다.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접근해 비정상적인 방법이나 검증되지 않는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한다.  
적발 업체 중에서는 비적격 투자자들을 유인한 무인기 투자중개업체가 90%로 단연 많았다.

개인 투자자가 선물·옵션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증권·선물회사에 개설된 계좌를 이용해야 하지만 이들은 이를 회피해 투자할 수 있다고 유혹하는 방식(대여계좌)으로 영업했다.  
주로 인터넷 웹사이트, 카페 등에 50만원 등의 소액증거금을 입금하면 대여계좌를 통해 선물·옵션에 투자할 수 있다고 유인했다.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에게는 '투자액 10배까지 대출', '우량 투자중개업체를 알선한다'면서 투자를 부추겼다.  
적법하게 신고한 것처럼 가장해 인터넷 또는 증권방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거나 유료회원 모집해 허위·과장광고나 한 자문업체도 적발됐다. /뉴스시스

## 'KT뮤직'→'지니뮤직'으로 새출발

KT뮤직이 음악전문기업 '지니뮤직'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30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명변경에 관한 안건이 의결되면서 KT뮤직 사명은 '지니뮤직'으로 변경됐다.  
김성욱 KT뮤직 대표는 "사명을 변경하고 본격적으로 디지털 음악플랫폼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며 "도전과 혁신으로 고객에게 신개념 음악서비스를 제공하는 1등 음악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니뮤직은 최근 LG유플러스 대량유상증자(267억원 투자, 7379만주)를 결정하면서 주요주주구성인 KT(지분율 42.49%), LG유플러스(지분율 15%), SM, YG, JYP 등 대형기획사(지분율 7.12%)로 변경될 예정이다.  
특히 기존 KT뿐 아니라 LG유플러스가 주주로 참여하면서 다양한 협업을 통해 지니뮤직의 음악서비스사업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뉴스시스

순창이 참좋다

# 순창 종합 사무기기

팀장 이동선  
<렌탈전문>

TEL: 063-653-5002  
H.P: 010-6633-4070